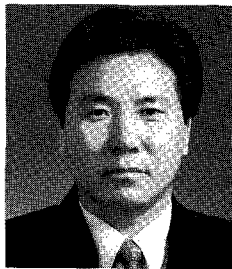


부화 종계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노 태 모
· 성현농장 대표
· 종계부화산업발전협의회 회장

'96년 한해를 보내면서 우리 종계·부화인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고 아쉬움이 남는 한해 였다고 생각한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과소비를 우려하는 호황기였으나 금년들어 수입이 크게 증가하여 국제수지가 엄청난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전반적인

국내 경기침체로 양계인 또한 예외에서 벗어날 수 없을 불황을 맞았다.

우리는 많은 것을 잃었고 많은 것을 생각하면서 대안 마련에 분주했다. '96년 일부 축산물이 개방되면서 염려하였던 문제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모 계열업계는 어느 나라도 흉내낼 수 없는 530만개 종란을 수입하여 병아리를 생산함에 따라 국내의 C.C병아리 공급 균형이 무너지는 전초전이 되었다.

관계 당국인 정부 관계자들은 이러한 점을 알았으리라 생각이 되지만 우리 양계업은 아직 정부 차원에서 관여할 시기가 아닌데 농림부에서 너무 일찍 양계업계에 관여하여 수급 조절의 문제가 발생한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양계업에 종사하는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 대처해 나아가야 되리라고 생각한다. 또한 우리 종계·부화인도 반성할 것이 많다고 생각한다.

첫째 종계 부화인들은 사업에 계획성도 없이 한번에 많은 것을 투자하고 많은 것을 생산해 내려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

P.S도 한번에 몇 만수씩 늘리며 부화장은 한 주에 몇십만개의 부화를 늘리는 이러한 폭발적인 과잉생산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

종계·부화 선구자들은 벽돌 하나 하나 쌓아 올라가듯이 하였는데 오늘의 종계·부화인의 사업은 어떠한지 우리 모두 생각해 볼 중요한 시기이다.

앞으로 우리 종계·부화인이 개방화 시대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종계·부화인은 스스로 수급 조절에 대한 대책 수립과 행동을 보여줄 수 있는 자세가 필요

하다.

과거에 부화협회를 창설하여 운영하였지만 아무런 업계의 도움도 주지 못하고 유명무실하게 없어지고 말았다. 이러한 문제는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뼈아픔 속에서 우리는 또 한번의 업계의 불황을 맞았다. 종계·부화인의 자리에 계열업체가 차지하게 되는 상황을 쉽게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에 우리 종계·부화인이 다시 뭉쳐야 되겠고 또한 종계·부화인의 권익을 위하여 1996년 7월24일 종계·부화산업발전협의회가 발족이 되어 전국의 종계·부화인들의 절대적인 협조아래 잘 운영되고 있다.

종계·부화산업발전협의회가 전 종계·부화인의 참여 하에 진정으로 종계·부화인 뿐만 아니라 생산 단체인 육계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운영되어 사랑받는 기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한다.

종계부화산업발전협의회가 잘 운영 될때에 우리의 생업이 안정되리라고 생각한다.

육계농가는 계열업체와 계약을 통한 위탁 사육으로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망을 확보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계열업체도 적정선의 생산을 유도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유지하여 육계 가격의 안정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계열업체 또한 종계부화산업발전협의회와 협의하여 적정선의 병아리 공급을 유지하여야 된다고 생각한다.

계열업체 또한 과잉 투자로 인하여 어려움을 자초하였다고 보며 계열업체 또한 적정수의 종계를 유지하여 나머지는 종계부화산업발전협의회쪽에 의뢰하여 서로 신뢰를 줄 수 있는 사업

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우리는 역사이래 가장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종계부화산업발전협의회와 계열업체 모두가 스스로 조절하지 않았을 경우 우리는 엄청난 수렁에 빠지게 될 것이다.

'97년 7월 1일이 되면 완전 수입 개방이 이루어진다. 우리는 개방화 시대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첫째 원가 절감이 없이는 국제 경쟁력은 국내에서조차도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잊어서는 않된다. 둘째 질병 예방으로 생산성 향상을 통해 생산비를 낮추어야 한다.

우리는 금년에 가금인플루엔자로 인하여 사상 처음으로 살처분하는 아픔을 겪어야 했다.

금년 겨울에도 많은 질병이 발생하리라 생각한다. 시설 현대화와 철저한 방역으로 질병에 대처하는 현명함을 발휘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종계·부화산업발전협의회는 활성화로 업계의 권익을 보호하며 각 업체간의 대화 창구로써 잘 활용하여 생산 단체로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란다.

종계·부화인 여러분! 우리는 많은 세월을 보내면서 똑같은 불황을 반복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우리는 조금씩만 생각하며 마음을 비우고 서로 협조하면 이러한 불황은 찾아오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왜 이렇게 10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반복되는 불황을 맞는 것일까를 다시한번 생각해 보자!

끝으로 남은 '96년 한해를 무사히 보내고 '97년 새해를 맞이 할 때 진정한 축산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을 아끼지 말았으면 한다. **양계**